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반성적 고찰

강 창 숙*

A Reflective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Aim and Goals of Korean Geography Subject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Chang-Sook Ka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목적과 목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 시기부터 제시된 한국지리 교육 목표는 ‘국토지리’ 시기와 ‘한국지리’ 시기로 구분되었으며, 교육목적을 명시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7차 시기부터 제시된 총괄목표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언급된 목적을, 기초지식과 능력, 국토인식, 자질함양과 인간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적을 시론적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2차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시론적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지리와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교과 교육목적과 목표의 명시적이고 유의미한 구성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어: 지리교육과정, 교육목적과 목표, 국토지리, 한국지리, 총괄목표, 세부목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phenomena that appear in the change of educational aim and goals presented in the high school Korean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from the period of syllabus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eography education goals presented from the 2nd curriculum period were divided into the ‘Korean National Geography’ period and the ‘Korean Geography’ period. The limitation that the educational aim was not explicitly presented. Second, the comprehensive goals presented from the 7th curriculum and the aim mentioned from the 2007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knowledge and abilities, percep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ideal human image. Based on this, the educational aim was constructed experimentally. Lastly, the goals and sub-goals presented from the 2nd period were analyzed in the perspectives of knowledge-understanding, process-skill, and value-attitude. Based on this, educational goals were constructed experimentally.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requires a change in perception and reflective practice that prioritizes explicit and meaningful composition of the subject’s educational aim and goals.

Key words: geography curriculum, educational aim and goal, Korean national geography, Korean geography, a comprehensive goal, sub-goals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ia2004@cbnu.ac.kr

I. 서론

학교 교과로서 ‘한국지리’ 교육의 역사는 1895년 근대식 학제에 따라 설치된 학부(學部)에서 출판한 최초의 국정 지리교과서 『조선지지(朝鮮地誌)』에서 시작된다.¹⁾ 근대계몽기 학교의 교과목으로 편제된 ‘한국지리’는 일제강점기에 역사와 함께 교과의 폐지, 말살, 왜곡되는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 ‘조선지방’으로 편제되는 등 온전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²⁾ 광복 후 교수요목기에는 초급중학교 ‘우리나라 지리’ 과목으로 편제되었고, 검정교과서가 발행되면서 본격적인 한국지리 교과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지리는 세계지리와 함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해 온 핵심 영역이다. 한국지리를 비롯한 지리과 교육과정은 지리학의 발전 및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고, 변화해 왔다. 교수요목기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지리교육과정의 편제와 내용이 변화했지만, ‘한국지리’는 초·중등 지리교육과정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학년에서 사회과의 계통적 주제로 학습하는 ‘우리나라’로 편제되거나, 지역지리로 학습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이 한 단원으로 편제되었다(심승희, 2017, 4). 중학교에서는 교수요목기와 1차 교과과정기에 ‘우리나라 지리’가 독립 과목으로 편제되기도 했지만, 이후부터는 특정 학년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학습하거나 ‘우리나라를 계통적 주제로 학습하는 사회과의 지리영역’으로 편제되었다(박선미, 2016b). 고등학교에서는 독립 과목(지리I, 국토지리, 한국지리 등)으로 편제되었다.

즉, 초등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특정 학년에서 사회과의 한 단원으로 편제되었고, 중학교에서는 특정 학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지리’와 함께 지리영역으로 편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라는 독립 과목으로 편제되었고, 교수요목기에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면 당연히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한국지리’는 약 130년 동안 우리나라 근·현대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중핵을 담당해 왔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사회교과로 편제되는 구조적인 문

제로 과목의 교육목적을 명시적으로 온전하게 구성하지 못했다. 교육목표 또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내용이 우선되고, 부수적으로 구성되는 요건 정도로 처리되었다.³⁾ 나아가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교과교육적 논의도 전무하다.

지리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본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논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Graves, 1984, 102-103), 학교 지리교육의 가치, 지향, 정체성 등의 관점에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진했다.⁴⁾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연구는, 중학교 사회과 초기(1차-3차 시기) 교육목표에 포함된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시작되었고(임덕순, 1977), 고등학교 지리과 목표의 변천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임덕순, 1989). 본격적인 연구는 초·중등학교 지리교육 목표의 체계화와 상세화에 대한 연구(남상준, 1996a)와 지리과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교사 인식(김진국, 2004a)과 목표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리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었다(김진국, 2004b). 그리고 지리과 환경교육이나 가치영역의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유홍식, 1995; 이경한, 1996)와 함께 제6차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목표의 문제점(황재기, 1995)과 제6차 한국지리 단원목표의 행동영역별 경향(조철기, 1999)을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중학교 사회과 통합구조가 지리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조직의 상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구조적 문제를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선미, 2016b).

이들 연구는 지리교육의 목표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차원에서 교과의 성격을 규명하고 교과의 내용, 수업 방법, 평가의 방향과 준거를 제시한다는 당위적인 인식을 공통적으로 견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교과목표, 단원목표, 수업목표 등의 위계나 의미 및 과목별 특성에 대한 분명한 구분 없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6차 교육과정 시기에 Tyler 등의 행동주의 목표 분류학을 배경으로 지리과 목표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계속되지 못했다.

지리교육 목적에 관한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기대하는 인간상’에 관한 논의가 유일하게 발견된다(이경한, 1993). 이 연구는 제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목의 목표를 대상으로, 지리교육에서

바라는 인간상을 지리적 통찰력을 갖춘 사람, 자아실현과 인격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도출하였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지리과의 관심은 내용체계나 교과목 편제에 집중되었고, 지리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즉, 국가 수준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지리를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⁵⁾ 의도된 계획으로서 교육의 본질은 목적과 목표 지향성에 있다. 학교 지리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지리교육의 교육적, 국가·사회적 가치를 논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목적과 목표의 변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공포, 고시된 문서를 자료로, 문헌 고찰 및 내용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시기별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의 원문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낱말의 인용 출처 표기는 생략한다.⁶⁾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고, 각론에서 제시되는 교과와 과목의 교육목적과 목표가 학교와 교실에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로 개정되었고, 국가 중심의 독점적 지배 체제 및 개발 과정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국가와 다양한 관계 기관 및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도모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총론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구조와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각론 개발을 통제하는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박선미, 2016a; 김대현, 2017).

이처럼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총론이 주도해 왔고, 지리과 혹은 사회과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개정되었기에 총론의 개발 방향이나 개정 중점은 교과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지침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외형적 구성체계에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련되는 항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⁷⁾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지향한 교육목적과 목표의 내용과 변화를 반성적으로 고찰하였다.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기별 교육목표 제시 양상

1. 총론의 시기별 교육목표 항목의 제시 양상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별책 1)’에서 ‘27. 한국어 교육과정(별책 43)’에 이르는 27종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과정 총론, 학교급별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과 학교급별 교육과정(이하 총론)은 상대적으로 형식적이고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교과 교육과정과 체험활동 교육과정(이하 각론)은 보다 영역 특수적이고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으로, 각각의 차원에서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지향한다면, 각론에서는 개별 교과의 배경 학문 등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영역 특수적인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는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지만, 형식상 각론의 교과별 영역 특수적인 교육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학교와 교실에서는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각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에서 계획하고 의도한 교육은 총론의 교육목적(교육의 이념과 목적) 설정에서 시작되고, 이는 법률로 규정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단일 법률(구) 교육법에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각급학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규정하였다(박창언·정영근, 2009, 8). 현재는 1997년 12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2021년 7월에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⁸⁾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법률에 근거하고, 한국지리 교육목적과 목표가 이들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는 제도적 관계를 바탕으로 교수요목기에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한국지리 교육과정에 명시된 시기별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현대 지리교육은 광복 직후 미군정청 학무국의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등 일련의 지시로 학교재개, 교원용어, 교과목, 교수용어, 시간 배당 기

준, 교과서 사용문제 등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던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9.-1946.8.)’를 거쳐 교수요목기에 시작되었다(강창숙, 2017, 248).⁹⁾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편성은 1949년에 제정,

표 1. 교육과정 시기별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구성체계

교육 관련 법률		국가 교육과정		
		시기 (공포, 고시)	총론	한국지리
(구) 교육법 (1949.12.31. - 1998.03.31.)		교수요목기 (1946.9.1.)	-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목적과 방침, 교수사항 및 시수 배당, 교수요목의 운영법, 교수요목(지리, 역사, 공민 부분)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제1조)		1차 (1955.8.1.)	머리말(본 각과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 운영상의 주의)	고등학교 (사회과 지리) 지도요령 및 유의사항, 고등학교 사회과 지리 지도내용(단원 목표, 내용), 실업학교를 위한 지리과정
교육방침(제2, 3조)		2차 (1963.2.15.)	머리말, 제1부 총론(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제2부 각론	(사회과) 목표, (지리 I, II) 지도목표, 지도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각급 학교 교육목적 (제93조, 제100조, 제104조)	⇒	3차 (1974.12.31.)	제1부 총론(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사회과) 일반목표, (국토지리)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각급 학교 교육목표 (제94조, 제101조, 제105조)		4차 (1981.12.31.)	제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학교 교육의 목적) 제2장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목표)	(사회과) 교과목표, (지리 I, II)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5차 (1988.3.31.)	제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우리나라 교육의 목적) 제2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목표, 기타계 계열별 목표)	(사회과) 교과목표, (한국지리) 목표, 내용(단원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6차 (1992.10.30.)	제1장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추구하는 인간상)	(사회과) 성격, 목표, (공통사회)성격, 목표, 내용(단원목표, 내용), 방법, 평가
		7차 (1997.12.30.)	(교육과정의 성격) 제1장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한국지리) 성격, 목표, 내용(영역별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현) 법률 (1997.12.13.-현재)		2007 개정 (2007.2.28.)	(교육과정의 성격) 제1장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한국지리) 성격, 목표, 내용(영역별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1. 교육기본법 (교육이념, 교육목적)	⇒	2009 개정 (2009.12.23.)	(교육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추구하는 인간상)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고등학교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고등학교 교육목표, (한국지리)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영역별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2. 초·중등교육법 (각급학교 교육목적, 성격)		2012 개정 (2012.7.9.)		
3. 고등교육법		2015 개정 (2015.9.23.)	(교육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한국지리)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4. 국가교육위원회법 (2021.7.20.-현재)	⇒	2022 개정 (2022.12.22.)	(교육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목표)	(한국지리 탐구)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밑줄은 연구자 표기

공포된 교육법과 1950년에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6-3-3 신 학제 실시를 위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4.4.20.)’ 이 시행된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다.¹⁰⁾ 하지만 당시는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의 혼란한 상황과 여러 제약으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논의나 심의도 충분하지 못했고,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목표도 설정하지 못했다(교육부, 1999, 196). 이에 1차 교육과정은 간단한 머리말(본 각과 과정이 나오기까지, 본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 본 과정 운영상의 주의)이 총론을 대신하였다. 각 교과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었기에 흔히 ‘교과과정기’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1차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과 각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국가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이 통합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2차 시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 형식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일반목표’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된 다음 7개 항목의 일반목표가 제시되었다. ‘일반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목표, 요청되는 인간상이 언급되었다.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목표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학습경험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구성에는 내용과 방법이 2대 요소가 되겠으나, 여기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상의 특징과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로 삼는다.” (밀줄은 연구자 표기)

3차 교육과정의 ‘제1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의 ‘1. 기본방향’에서는 “국가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부단히 재검토,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2. 일반목표’의 첫머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학교 교육의 일반목표는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교육이념이 일생을 두고 계속 추구하여야 할 이상적 가치임에 대하여, 학교 교육은 그 이념에 근거를 두되, 제한된 교육기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는 도달이 가능한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이념과 일반목표의 관계 및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일반목표’ 3개 항목(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과 상세 항목을 제시하였다.

4차 교육과정의 ‘제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는 “우리의 교육은 민주, 복지, 정의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첫머리에서, 총괄목표와 9개 하위목표로 구성된 ‘고등학교 교육목표’가 처음 제시되었다.

총괄목표는 고등학교 교육목적(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목적에 의거한 것으로, 4차 이후부터 고등학교 교육목표의 총괄목표는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의 ‘제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첫머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홍익인간)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를 명시하였다. ‘제2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1. 교육목표’에서는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토대로 설정한 6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5차 시기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 점과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6차 교육과정은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 교

육과정의 성격'에서 "이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목적(교육법 제104조) 및 교육목표(교육법 제105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 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한다."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명시하였지만,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부터 총론은 '교육과정의 성격'을 머리말로 구성하고,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교육과정 구성 방향의 핵심 항목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6차 이전의 구성체제와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의 기반은 6차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구성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7차 시기에 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제시한 다음에, '추구하는 인간상'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학교급별 목표에서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총괄목표와 하위목표 5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후의 교육과정은 모두 7차의 목표 제시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정도로 대동소이하다.

2009와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었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고등학교 교육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고등학교 교육목표가 되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핵심역량이 명시되었다는 점이 주요 변화이다.

이처럼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구성체제는 시기마다 변화하였으며, 2차 시기부터 기본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기 시작했다. 6차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우선으로 구성되었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중심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4차와 5차 시기에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2차 시기에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에서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상의 특징과 구현'이 언급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구성체제는 2차 교육과정부터 계승, 수정, 보완의 형식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시기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일반목표가 명시되었고, 4차 시기부터 학교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 목적을 함께 명시하기 시작했다. 5차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이념, 교육목적,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명시했으며, 6차 시기부터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6차 시기부터 교육과정과 교육목적 및 목표의 법적 근거를 고시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궁극적 목적의 지향점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수렴되었다.¹¹⁾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다음에 핵심역량이 명시되었다는 점이 주요 변화이다. 핵심역량은 순서상 고등학교 교육목표보다 상위의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역량이 그럴만한 성격의 것인지 수궁하기 어렵다.

총론 수준에서 교육과정 시기마다 변화한 교육목적 관련 개념의 위계는 우리나라 교육이념·교육목적·추구하는 인간상·고등학교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 혼재해 왔다. 무엇보다 법률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육목적 위치(위계)에 대한 불명확성과 내용의 중복성, 교육목적과 목표의 일관성 결여, 추상적인 규정의 과다 등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다(박창언·정영근, 2009).

2. 한국지리 교육목적과 목표의 구성과 문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가 독립 과목으로 편제된 시기는, 2차(지리I), 3차(국토지리), 5차(한국지리), 6차(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7차(한국지리), 2007 개정·2009 개정·2012 개정·2015 개정(한국지리), 2022 개정 교육과정기(한국지리 탐구)까지 10회 정도다.¹²⁾ 한국지리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체제는, 총론 혹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지리교과의 영역 특수성이나 자율성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전제한다.

한국지리는 2차 시기 '국토지리의 계통학습에 중점을 둔' 지리I부터 계통적 주제 중심으로 조직하되, 일부 단원에서 지역지리적 접근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조직되었다. 2022 개정에서는 국토 및 지역의 지리적 이슈와 쟁점을 탐구하는 '한국지리 탐구'로 전환하였다. 이전의 한국지리 과목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2022 개정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시기별 교육목적 및 목표

의 항목 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차 시기부터 교육과정 구성의 관점이 교사의 '지도' 중심에서 '교수·학습'의 상호주관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즉, 구성체계 항목에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면, 5차까지는 교사의 교수(지도할 내용과 유의점 등) 중심 관점에서 구성되었고, 7차부터는 교과 교육과 수업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6차 교육과정기에 특정 교육이념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지만, 인간 중심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이념으로 반영한 것이 배경이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전환적 변화가 각론의 항목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즉, 7차 시기부터 교육과정 내용 제시방식이 '성취기준' 형식으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항목 구성은 2015 개정부터 반영되었다. 즉, 7차 시기부터 2012 개정 시기까지 과거의 '영역별 목표(단원 목표)'가 '성취기준'과 함께 제시되었다.¹³⁾ 이러한 문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및 교사 교육과정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해 왔다.

셋째, 한국지리 교과목의 교육목적이 명시적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지리는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교육을 실행했음을 반증한다.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의 '교수목적'을 제외하면, 교과목의 교육 목적을 명시적 항목으로 구성한 경우가 없다. 교과목의 '목표'만 명시적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도목표, 일반 목표, 교과목표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다. 나아가 6차 시기부터 구성된 '성격'에서 교과목의 목적이 간접적으로 진술되었고, 2012 개정 시기에는 교과의 '목표'에서 목적이 진술되는 등 비논리적 현상도 나타났다.

넷째, 이른바 (통합)사회과는 6차 시기까지 한국지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중층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작동하였다.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에 앞서, 사회과 목표나 사회과 성격이 제시되었기에, 한국지리의 영역 특수성이나 정체성 구성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6차 시기에 (통합)사회과 및 공통사회과의 성격과 목표만 구성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6차 시기는 '사회과'라는 외부 요인으로 한국지리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

다섯째, 6차 시기부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

화하였다. 그동안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방침은 교육목표와 내용의 지식체계에 국한되어 설정되었지만, 6차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제도 측면까지 고려하여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방향과 기준'까지 기본방침으로 설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187). 이후 교과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방법 및 과정을 포함하여 성격에서 평가에 이르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차 시기부터 새로운 항목으로 구성된 '성격'의 내용구성에서 나타나는 애매모호함도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¹⁴⁾ 7차 시기에 처음 구성된 한국지리 '성격'에서는 과목의 편제, 내용조직, 내용 중점에 대한 설명을 3개 문단으로 제시하였지만, 목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한국지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처음 언급된다. "궁극적으로 한국지리는 ... 과목이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문장 형식은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과목의 성격을 반복, 설명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한국지리 '성격'과 '목적'에 대한 내용은 2007 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극히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정도로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목적의 궁극적인 지향은 '인간상' 형성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시기별 교육목표 항목 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전환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체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에 외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구조적 제한이 있지만, 7차 시기부터 과목의 목적을 의미 있게 구성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 또한 뚜렷하다. 앞으로 지리과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구성 항목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는 '내용 채우기'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교과의 교육목적과 목표의 명시적이고 유의미한 구성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

III. 한국지리 교육목적과 목표의 구성과 반성

한국지리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한국지리 교육이 사회적,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설득하는 작업이다(남민우, 2007, 122에서 원용).

바람직한 한국지리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설정의 기본 방향 등에 관한 논의는 Bloom 이후 주목되고 있는 목표 상세화 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남민우, 2007, 124), 한국지리 교육목적은 물론 지리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총론과 마찬가지로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도 목적과 목표의 위계 및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목적, 목표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선행 논의로 Eisner(1991)의 견해가 있다.

Eisner(이해명 옮김, 2012, 170-171)에 따르면, 목적(aims)은 교육에 대하여 어떤 그룹의 가치관을 밝히는 일반적인 선언이며, 목적에는 한 지역 사회나 그룹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나타나 있다. 반면에, 목표(goals)는 목적과 학습목표(objectives)의 중간 위치에서 어떤 의도를 선언하는 것으로, 어떤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따르는 지향점을 기술한 것이다. 목표는 예상되는 결과에 중점을 두며, 교육과정 설계자에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택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학습목표는 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출발점과 도달점에서의 행동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objectives의 특징이며, 이들의 관계는 aims에서 goals가 도출되고 goals에서 objectives가 도출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의하면, 교과와 가치나 이념을 포함한 한국지리 교육목적, 교육목표, (과거의) 단위목표나 (현행) 성취기준의 순으로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즉, 한국지리 교육의 목적은 한국지리 교육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국가·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나 지향하는 바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목표는 한국지리 교과목에서 특히 고유하게 지향하는 지리적 지식, 기능,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내용의 필수 학습요소나 핵심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1. 한국지리 교육목적의 부재와 시론적 구성

교수요목기에 ‘교수목적’이 명시적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내용은 사회생활과 교육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는 2차 교육과정에서 4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리 I 지도목표’로 처음 제시되었다. 3차와 5

차 시기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토지리 목표’와 ‘한국지리 목표’가 제시되었다.

7차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총괄목표와 6개 항목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한국지리 목표’가 제시되었다.¹⁵⁾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한국지리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처음 언급되었다. 7차 시기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성격’은 과목의 편제, 내용조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을 뿐 ‘목적’은 언급되지 않았다. 2012 개정 교육과정은 ‘목표’에서 한국지리 교육의 목적, 총괄목표 및 세부목표가 항목 구분 없이 함께 제시되었다. 2007 개정 시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시된 한국지리 교육의 ‘목적’과 ‘총괄목표’의 내용은 거의 같다. 일부 용어가 추가되거나 수정될 뿐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표 2).

7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는 총괄목표는 교과와 다양한 목표 요소와 그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는 종합목표로써,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교육부, 1998, 19; 교육과학기술부, 2010b, 16).¹⁶⁾ 그러므로 목적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총괄목표가 목적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에 7차 시기부터 현행 2015 개정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괄목표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언급된 목적을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즉, 기초적인 지리적 지식과 능력 등의 1차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토인식을 형성하는 2차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가 한국지리 학습자의 자질함양과 인간상 형성의 궁극적 목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현재 관점에서 한국지리 교육의 목적의 한가지 사례를 시론적으로 구성하였다(표 3).

Eisner(이해명 옮김, 2012, 141-148)는 “목표는 학생의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에 대한 지표여야 하며, 그것은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의 실천을 위해 되도록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교과목의 목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Tyler 등의 행동주의 교육 목표론과 상세화 운동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는 교과목의 목적이나 목표는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그리고 행동 변화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아도 되는 교과와 가치나 성격, 이념 등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함

표 2. 한국지리 교육과정 시기별 목표 구성과 목적의 내용

시기 (과목명)	한국지리 목표 구성 형식
	목적 및 총괄목표의 내용
2차 (지리 I)	지도목표 : 세부목표 4개 항목
3차 (국토지리)	목표 : 세부목표 5개 항목
5차 (한국지리)	목표 : 세부목표 5개 항목
6차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공통사회 목표 : 세부목표 4개 항목
7차 (한국지리)	목표 : 총괄목표와 세부목표 6개 항목 (총괄목표) 국토의 자연환경을 파악하고, 생활권의 형성 과정 및 변화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국토관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화롭게 개발, 이용,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목표 : 총괄목표와 세부목표 6개 항목 (성격) (...생략...)궁극적으로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지역화에 대응하는 안목을 기르고, 국토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 개정 (한국지리)	(총괄목표)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는 자연 및 인문환경의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국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리적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기르며, 국토의 지리적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데 있다.
	목표 : 총괄목표와 세부목표 6개 항목 성격, 목표(총괄목표, 세부목표)의 내용은 2007 개정과 동일
2009 개정 (한국지리)	목표 : 성격, 목적, 목표(총괄목표와 세부목표 6개 항목) 성격, 목적, 목표의 내용은 2007 개정과 거의 동일
2012 개정 (한국지리)	목표 : 총괄목표와 세부목표 6개 항목 (성격) (...생략...)궁극적으로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지역화에 필요한 지리적 안목을 기르고,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나아가 한국지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개정 (한국지리)	(총괄목표)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리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의사결정능력,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밑줄은 연구자 표기

축되어 있다(남민우, 2007, 121).

한국지리 교육목적은 과목의 가치나 성격 등을 과목의 영역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지리 교육의 영역 특수성은

한국지리 교육목적의 1차 요소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즉, 1차 요소에서 기초지식으로 제시된 ‘국토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리적 이해’와 ‘다양한 지역적 현상의 종합적 파악’은 그동안의 한국지리 교육과정 내용

표 3. 한국지리 교육목적의 구성 요소

시기	1차 요소 (기초지식과 능력)	2차 요소 (국토 인식)	궁극적 목적 (자질함양과 인간상)
7차 (총괄목표)	(기초지식) · 국토의 자연환경 파악 · 생활권 형성 및 변화의 체계적, 종합적 이해	· 미래 지향적 국토관	(자질함양) ·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보전하는 자세
2007 개정 (목적)	(기초지식) ·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 세계화·지역화의 국토 공간과의 유기적 연관성 경험 (지리적 능력) · 세계화·지역화에 대응하는 안목	·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인간상) ·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
2007 개정 (총괄목표)	(기초지식) · 국토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지리적 이해 · 국토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의 종합적 파악 (지리적 능력) · 지리적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 함양	-	(자질함양) · 국토의 지리적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자세
2015 개정 (목적)	(기초지식) ·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지리적 능력) · 세계화·지역화에 대응하는 안목 신장	·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 인식	(인간상) ·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
2015 개정 (총괄목표)	(기초지식) · 국토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리적 이해 · 국토 공간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 (지리적 능력) · 지리적 사고력·분석력·창의력·의사결정 능력·문화적 다양성 이해 능력	-	(자질함양)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 형성
↓			
(시론적) 목적	(기초지식) · 국토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리적 이해 · 다양한 지역적 현상의 종합적 파악 (지리적 능력) · 지리적 탐구력 · 지리적 통찰력	·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 인식 · 미래 생태적 국토인식	(인간상) · 삶의 터전인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

과 교실 수업 경험에 근거할 때, 한국지리 교육에서 언제나 참인 명제로 필수적인 지리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능력은 오래전부터 기능, 능력, 사고력의 관점에서 제시되었고, 2015 개정 시기부터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열되고 있는 지리적 기능은 지리적 사고력과 탐구력에 포함되는 것들로(강창숙·태지현, 2023, 57), 지리적 탐구력으로 종합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 이해 능력’은 ‘능력’보다는 학습자가 ‘이해’할 지식·이해 영역으로, ‘문화적 다양성’은 지리적 이해에 포함되는 중요 요소로 판단된다.

기초지식과 지리적 능력은 한국지리 교육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구성하고 있지만, 2차 요소는 ‘올바른 국토 인식’에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국토 인식은,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 인식과 미래 생태적 국토 인식으로 제시하지만,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국토관이나 국토 인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지리 과목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지리적 이해’, ‘지리적 사고력’, ‘지리적 환경’ 등에서 ‘지리적’이라는 용어로 영역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목 고유성 관련 목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리적’이라는 용어가 매우 포괄적이며, 경우에 따라 일반성을 갖는 용어이기에 목적 진술에서 반복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지리 교육의 일반성, 즉 보편적 가치는 ‘학습자 개인의 삶과 국가 및 사회 공동체적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질이나 가치’를 ‘궁극적 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 목적은 보다 항존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한국지리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일 때 바람직하다. 2015 개정의 목적에서 유일하게 ‘인간상’에 해당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모든 교과에 해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향이며,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되어도 적절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이에 ‘삶의 터전인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한국지리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2. 한국지리 교육목표의 내용과 시론적 구성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세부목표는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의 (행동) 영역별 목표로 구성되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일러두기)에서는 내용체계를 이루는 ‘내용요소’를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의 관점에서 지식·이해(교과목 및 학년(군)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과정·기능(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과정 또는 기능), 가치·태도(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태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22, 3). 이러한 영역별 구분에 따라 한국지리 교육과정 시기별 세부목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교육과정에서 세부목표로 제시된 각 항목은 대부분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복문으로 제시되었기에 각 항목의 목표는 문장 단위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핵심 내용과 서술어를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시기 ‘지리 I’의 세부목표는 4개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며, 항목 1은 “① 우리 국토의 지역성과 각 지역 사이의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세계적 시야에서 이해시킴으로써, ② 애향 애국의 심정과 멸공 통일의 신념을 기르고 아울러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와 같이 구분하고, 각각 지식·이해 영역과 가치·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차 시기부터 제시된 한국지리 교육목표는 ‘영토로서 국토에 대한 지리학습’이 전개되었던 ‘국토지리’ 시기와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에 대한 지리학습’이 이루어진 ‘한국지리’ 시기의 목표로 대분할 수 있다. 즉, ‘국토지리의 제통학습’에 중점을 둔 2차 시기 지리 I과 3차 시기 국토지리는 애향, 애국심 등을 주입하는 국가주의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시기였다. 5차 시기 한국지리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지만, 당시 지리교육계 내외의 인식을 고려하면 국토지리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¹⁷⁾ 상대적으로 7차 시기부터는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애와 국토인식 함양’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한국지리 시기가 전개되었다.

7차 교육과정부터 한국지리 교육목표는, 과목의 인지적 고유성을 드러내는 ‘지식·이해’ 영역의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제시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태도 영역은 ‘국토애’, ‘국토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반면에 ‘과정·기능’ 영역의 성격은 복잡적이다.¹⁸⁾ 즉, 과정·기능 영역은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과정 또는 기능’으로, 사회과 과정·기능은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쟁점을 분석하며, 다른 사람 및 집단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다(교육부, 2022, 일러두기와 4).

한국지리 과목에서 ‘과정·기능’ 영역은 ‘지식·이해’ 영역을 탐구하는 과정에 필요충분한 요건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바람직한 ‘가치·태도’ 함양에 이르게 된다. 상대적으로 학습자 측면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탐구)과정은 ‘지식·이해’와 특히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지식·이해와 가치·태도 영역을 매개하는 중간 과정으로 기능하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기별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한국지리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영역별 세부목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이해 영역에서는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의 위상과 의미 파악’을 바탕으로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이해’, ‘국토의 전체 및 각 지역의 지역성 이해’, ‘지리환경과 주민생활의 생태적 관계 이해’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이들 목표는 삶의 터전으로 실존하는 전체

표 4. 교육과정 시기별 한국지리 세부목표의 영역별 구성과 내용

시기 (과목명)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지식	이해	(탐구) 과정	기능	가치	태도
2차 (지리 I)	· 국토와 자원의 세계적 위치 파악	· 국토의 지역성과 지역의 상호의존관계 이해 ·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밀접한 관계 이해	· 국토와 자원의 세계적 위치 · 지리적 계 현상 분석	· 자연환경 이용 능력 · 자료를 이용하여 지리적 현상 분석 · 관찰력, 사고력, 판단력	· 애향 애국의 심정과 멸공 통일의 신념 ·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정신	· 국가 및 인류 문화 발달에 노력하려는 태도
3차 (국토지리)	· 인구, 식량, 자원, 도시, 환경 보전 등의 당면 문제 파악 ·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성의 종합적 파악	·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활의 특색 이해 · 생활 환경의 시·공간적 변천 이해	· 지리적 현상 탐구	· 관찰력, 사고력, 판단력 함양	· 애향, 애국심 함양	· 국력 배양에 이바지 · 생활 환경을 개발, 이용, 보전하는 태도 · 지리적 현상 탐구 태도 · 지역 발전에 이바지
5차 (한국지리)	· 국토 공간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파악 · 인구, 자원, 환경 등의 당면 문제를 지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	· 지리적 현상과 각 지역 성격의 체계적 이해 · 생활 환경의 조화로운 개발, 이용, 보전을 이해	-	· 문제해결 능력 및 응용 능력 · 지리적 사고력 함양	-	· 미래 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태도 · 세계적 안목을 지닌 한국인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
7차 (한국지리)	· 국토의 세계적 위상 알기 · 지역지리의 다양한 관점 파악	· 국토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상호작용 이해 · 우리나라 전체 및 각 지역의 지역구조와 지역성 이해 ·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각 지역의 역할 이해	· 국토의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표화, 지도화	· 지리적 사고 능력 · 지리적 정보를 종합, 분석, 응용하는 능력 · 국토의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참여 능력	· 국토에 · 환경의 가치 인식 · 국토 통일의 의지 함양	· 지역 간 협력을 추구하는 태도
2007 개정 (한국지리)	· 우리 삶의 공간이 갖는 의미 파악 ·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구조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	· 국토의 지리적 현상 종합적 이해 · 지리환경과 주민생활의 연관성을 유기적·생태적으로 이해 · 국토 공간의 정체성 문제 이해	· 국토의 다면적·복합적 공간 특성 인식 · 국토 및 지역의 당면 과제 인식	· 지리정보 선정·수집·분석·종합하고 활용하는 능력 · 지리적 기능 및 사고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	· 국토 공간과 환경의 가치 인식 · 국토 공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행동	· 국토관과 국토애를 함양하는 태도
2015 개정 (한국지리)						
↓						
(시론적) 세부목표	·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의 위상과 의미 파악	· 국토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상호작용 이해 · 국토의 전체 및 각 지역의 지역성 이해 · 지리환경과 주민생활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이해	· 국토의 다면적·복합적 공간 특성 탐구 · 국토 및 지역의 당면 과제 탐구	· 지리적 탐구 기능 · 지리적 역량 · 지리적 통찰력 · 인공자능 활용 능력 · 에듀테크 활용 능력	· 장소애 · 지역 정체성 · 국토애 · 생태지향적 국토 인식	· 지역 간 협력을 실천하는 태도 · 지역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태도 · 국가 및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

로서의 국토와 각 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지리 과목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명제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과정·기능 영역에서는 2차 시기부터 지리적 탐구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던 ‘지리적 현상 탐구’는 ‘국토의 다면적·복합적 공간 특성 탐구’로 변환하고, 최근에 제시되는 ‘국토 및 지역의 당면 과제 탐구’를 지리적 탐구 ‘과정’의 목표로 제시한다. 그동안 기능, 능력, 사고력 등으로 나열되었던 기능들은 ‘지리 탐구 기능’으로 일괄하고, 지리 탐구 기능과 지리 탐구를 통해서 함양되는 지리적 역량과 지리적 통찰력을 주요 ‘기능’ 목표로 제시한다.¹⁹⁾ 나아가 학습자의 일상 및 학습 환경으로 구축된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에듀테크(EduTech) 활용 능력도 주요 ‘기능’ 목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내가 사는 곳’의 다중적 스케일을 고려한 국토 및 지역인식의 관점에서 국토에 및 생태지향적 국토인식 함양과 장소에 및 지역 정체성 함양을 주요 ‘가치’ 목표로 제시한다. ‘태도’ 목표는 과거의 ‘추구하는 태도’를 지향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적극적 태도의 관점에서 지역 간 협력을 실천하는 태도, 지역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태도, 국가 및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제시한다.

IV. 정리 및 결론

교육목적과 목표는 교과 교육적, 국가·사회적 가치를 논증하고 설명한다. ‘한국지리’는 우리나라 근·현대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중핵을 담당해 왔지만, 국가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로 편제되는 구조적 문제로 과목의 교육목적을 명시적으로 온전하게 구성하지 못했다. 나아가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교과 교육적 논의도 전개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목적과 목표의 변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 시기부터 제시된 한국지리 교육목표는 ‘영토

로서 국토에 대한 지리학습’이 전개되었던 ‘국토지리’ 시기와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에 대한 지리학습’이 이루어진 ‘한국지리’ 시기의 목표로 구분되었다.

둘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한국지리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목적’이 처음 언급되었지만, 이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지리는 온전한 ‘목적’이 없는 교육을 계속했다는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7차 시기부터 제시된 총괄목표와 2007 개정부터 언급된 목적을, 1차 요소(기초지식과 능력), 2차 요소(국토인식), 궁극적 목적(자질 함양과 인간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리 교육목적을 시론적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2차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리 교육목표를 시론적으로 구성했다. 한국지리 교육목적과 목표의 시론적 구성은 한국지리의 영역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시기별 교육목표 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전환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체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에 외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구조적 제한이 있지만, 과목의 목적을 의미 있게 구성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 또한 뚜렷하다. 앞으로 지리와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구성 항목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교과 교육목적과 목표의 명시적이고 유의미한 구성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

지리교과의 과목별 목적과 목표에 대한 논의는 지리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논쟁적으로 전개될 때, 보다 온당한 교육적 의미를 정립할 수 있다. 더불어 실천적, 경험적 연구가 계속되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영역 특수적인 교과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비판적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주

- 1) 1895년 7월 근대식 학부 관제에 따라 공포된 ‘소학교령(고종 32년, 1895.7.19. 칙령 145호)’은 소학교의 수업연한을 심상과

- (3년)와 고등과(2년 또는 3년)로 나누었다. 심상과의 경우 본국지리가 선택 과목이고, 고등과는 본국지리가 필수, 외국지리가 선택 과목이었다(강창숙, 2013, 749).
- 이어서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 한성사범학교규칙(1895.7.23. 학부령 제1호)이 공포되었다. 이의 규칙 제11조에는 13개의 학과목과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리는 본국과 외국의 (정치) 지리 및 자연지리 분야인 지문을 다루는 과목(地理: 本國及萬國的政治地理와地文의初步)으로 규정되었다(안종욱, 2023, 24).
- 『조선지리지(1895)』는 소학교 및 한성사범학교 등 근대계몽기 학교에서 본국지리 수업을 위한 국정 교과서로 발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리는 교육과정 시기별로 과목명이 변화했지만, 본 연구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할 경우는 ‘한국지리’로 통칭한다.
- 2) 광복 직전인 1943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간한 「중학교 교과 교수 및 수련 지도요목」에 의거하면, 우리나라는 국민과 지리 제2학년(매주 2시간)에서, 일본의 4대 지역의 일부 지역인 ‘三. 서방지역(조선지방, 관동주)의 일부로 편제되었다(강창숙, 2019, 56).

일제는 통감부기(1906-1910)에 지리역사 교과서는 편찬하지 않았으나 교과목으로 배정하기는 했다. 그러나 강점 이후 ‘보통학교 시행규칙’에서 지리역사 과목을 누락시켰다. 조선의 지리역사가 아닌 일본의 지리역사를 익혀서 장차 조선 아동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킬 목적으로 국어독본(國語讀本), 조선어및한문(朝鮮語及漢文), 수신서(修身書) 등에 많은 양의 지리역사 관련 단원을 삽입시키고, 그 초점은 조선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등에 두는 등 우민화 교육의 도구로 삼았다(박재홍·김순전, 2016).

 - 3)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 지리교육 내용의 중복과 계열성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의 원인으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 선정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조성욱, 2014). 또한 교육과정 목표 구성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는 목표와 내용 개발이 별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김진국, 2004b). 한편,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박병기 외, 2021)에서는 초·중고 지리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지리교과의 성격, 목적, 역량의 기술이 빈약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방향 설정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 4) 남상준(1996b)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95년까지 지리교육 분야의 연구(단행본, 석·박사학위논문, 연구 논문 등) 423편 중에서 지리교육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연구는 단지 4편이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연구도 극히 소수가 발견되고 있다.
 - 5) 이러한 문제는 지리교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교과가 중요한 만큼 교과 교육목적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교과교육 관련 문헌들이 교과 교육목적을 명료하게 서술하지 않

는 등, 교육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없이 교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김종건, 2003, 42-43).

- 6) 주로 활용한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12) 중학교 사회생활과(1948.12.24)』, 문교부령 제46호(1955.8.1.), 문교부령 제121호(1963.2.15), 문교부령 제350호(1974.12.31.), 문교부 고시 제443호(1981.12.31.),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10.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12.3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7.9.),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에 의거한 교육과정이다.
- 7) 본 연구에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중심으로 총론의 구성체계는 각론의 배경으로 살펴보는 것에 한정한다. 즉, 총론에서 제시된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각론의 그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기에 논의로 한다.
- 8) 학교 교육의 교육목적에 대한 사항은 법률과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다. 194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구)교육법은 1998년 3월에 폐지되었다. 단일 법전인 (구)교육법은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제1조), 교육방침(제2조와 제3조), 각급학교 교육목적(제93조, 제100조, 제104조), 각급학교 교육목표(제94조, 제101조, 제105조)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13일 (구)교육법을 대신하는 현행 법률 세 가지(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가 공포되었다. 현행 법률에서 교육목적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교육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목적에는 각급학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박창언·정영근, 2009, 6-9).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차(문교부령 제46호)부터 3차 시기(문교부령 제350호)까지 문교부령으로 공포되었다. 3차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된 시기(1979.3.1.)부터 (구)교육법에 의거, ‘법률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가 7차 시기까지 이루어졌다.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추가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298호)’이며, 부칙 제4조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10.14. 검색)

- 9) 교수요목기는 광복 후 혼란기로 교육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 계속되었던 과도기였으며, 미군정청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교수요목기는 1946년 9월 1일 미군정청 문교부의 ‘신교육제도’ 공포와 국민 학교 교과과정표와 중등학교 교과과정표 발표로 시작되었다. 군정청 문교부는 1947년부터 교과과정표에 따른 ‘초 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을 발행했으며, 『교수요목집 (1) 국민 학교 이과, 중학교 과학과』가 첫 번째로 발행되었다. 각 교과과의 교수요목집은 대체로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상 주의로 구성되었으며, 가르칠 내용 즉 교수요목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교수요목기’라고 칭한다. 지리과 교수요목은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12) 중학교 사회생활과(1948.12.24)』에 의거한다.
- 10) 1차 시기,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에서 고등학교는 사회과를 포함한 대부분 교과목은 1955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6호, 1955.8.1)은 1955년에 공포되었다.
 - 11)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으로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와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의 상위개념이다(백혜조·박지혜, 2014).
 - 12) 교수요목기에 초급중학교 3학년 과목(우리나라 생활)으로 ‘우리나라 지리’가 편제되었고, 고급중학교 4, 5학년은 자연 및 인문지리로 구성된 ‘자연환경과 인류 생활’이 편제되었다(강창숙, 2017). 당시는 중·고등학교가 중학교로 통합 설치되었던 시기였기에, ‘우리나라 지리’는 현대 한국지리 교육의 효시로 의미가 크다.
교육과정 문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이 시기별로 다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시기별 교육과정(일반계/인문계, 보통교과 기준)은 처음 공포 혹은 고시된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 13) 7차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활동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년별 내용을 성취수준과 관련 학습 활동을 결합한 학습목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내용 제시는 내용을 가르쳐야 할 주제의 범위로 파악하기 보다는 학습하여야 할 목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교육부, 1998, 14).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러두기’에서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활동의 기준’으로 정의되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로 기대되는 도달점’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성취기준이 학습 목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바, 성취기준은 영역별 목표나 대단원 수준의 학습목표에 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14)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각론은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5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성격’은 방법 및 평가 항목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제기된다. 특히 교과과의 ‘성격’은 해당 교과과의 ‘목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각 교과과의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각 교과과의 목표가 교과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 항목의 존재성이 모호하다(박창언·정영근, 2009, 14).
교육부가 제공한 6차 교육과정 개발 지침에 따르면, 각 교과 교육의 ‘성격’은 각 교과과의 특성과 위치, 학문 영역, 강조점, 총론의 정신 및 목표와의 관련성, 타 교과와의 관련성 등을 진술하도록 했다(최영환, 2005, 11).
 - 15) 한국지리 교과목표는 6차 시기까지 항목별로 구성된 ‘목표’로 제시되었지만, 7차 교육과정부터는 총괄목표와 행동영역별 목표로 구성되었다. 총괄목표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종합목표로 불리기도 한다. 행동영역별 목표는 말 그대로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구성되었으며, 하위목표, 세부목표 등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행동영역별 구성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총괄목표와 세부목표로 분석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른다(교육부, 2022, 일러두기).
임택순(1989, 14)은 지리교과의 목적이 설정되지 못하고, 목표만 제시되었던 시기에는 첫 번째로 제시된 목표가 가장 ‘목적’에 근접한 ‘주도적 목표’로 간주했다.
 - 16) 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부터 교과 목표는 총괄목표와 행동영역별 목표로 구성되었다. ‘총괄목표’는 교과과의 다양한 목표 요소와 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구성되었다. 즉, 총괄목표는 학년 혹은 학교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기초적 지식과 능력 등의 1차적 목표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의 2차적 목표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 목표 요소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같은 인간 형성의 궁극적 목표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교육부, 1998, 19). 이후 총괄목표는 교과과의 다양한 목표 요소와 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하는 종합목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과 교육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16).
 - 17)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주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주요 개정 양상이었다(강대현, 2015, 63). 여러 교과로 구성된 ‘사회과’는 국어과와 함께 국정 교과서 발행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대상이 되었고, 국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규율하는 국가주의로 작동하였다(강진호 외, 2007, 54).
6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그동안 필수 과목으로 편제되었던 ‘국토지리’를 선택 과목으로 편제하고 ‘현대 사회와 시민’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로 편제하려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지리학계와 지리교육계에서는 ‘국민교육으로서의 국토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토지리’ 필수 과목 지정을 요구하였다(권혁재, 1991).

국가 수준에서 6차 교육과정은 권위주의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민주화 시대의 교육과정을 지향한 전환기 교육과정으로 평가된다. 즉,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한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세계시민 양성으로의 전환을 지향했던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구상을 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당시의 현실을 도외시한’ 교육과정으로 평가된다(김영석, 2013, 14-15).

이러한 지리교육계 내부 인식과 교육계 일반의 인식을 고려하면, 5차 시기 ‘한국지리’까지 ‘영토로서 국토교육’에 중점을 국토지리 시기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 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으로 명시된 역량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했다. 최근 역량은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가동’으로 간결하지만, 복합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정의되고 있다(이상은·소경희, 2019; 강창숙·태지현, 2023, 67). 이러한 역량의 의미나 특성을 고려하면, 역량은 과정·기능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과정적이며 실천적 특성을 지니는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목표 영역 분류와 제시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현행 사회과를 비롯한 교과목의 목표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영역 분류는 각 목표 영역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상호배타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식 목표는 가능 목표와 맞물려 있고, 기능 목표는 지식 혹은 가치·태도 목표와 맞물려서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종합하고 균형 있는 교과교육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강대현, 2018, 1).

- 19) 지리과는 일찍부터 지리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과 기능을 구성해 왔다. 지리 탐구는 학습자가 지리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기능으로 연계된 탐구과정을 기반으로, 탐구과제를 수행하는 지리과 고유의 탐구활동이며, 궁극적으로 학습자 역량 함양을 지향한다(강창숙·태지현, 2023, 67).

‘지리적 통찰력(Geographical insights)’은 곧 지리적 안목이라 할 수 있다(서태열, 2005, 63 참조). 즉, 지리적 통찰력은 지리적 안목을 갖춘 사람의 고차적 인식 역량이다. 미국의 『국가 지리 기준(National Geography Standards)』에서는 지리교육의 목적(aim)을 학생들이 ‘지리적 안목(Geographically informed person)’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리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지리는 공간적 관점에서 사람, 장소, 환경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리의 힘(power)과 훌륭함(beauty)

을 공간적 스케일과 글로벌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GESR, 1994, 26-29). 즉,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지리적 안목을 갖추는 방법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위해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GENIP, 2012, 7).

참고문헌

- 강대현, 2015, “한국 사회와 교육과정의 변천과 양상: 교수요목기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교육, 54(1), 63-89.
- 강대현, 2018, “종합적인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목표 제시 전략”, 시민교육연구, 50(1), 1-28.
- 강진호 외 지음, 2007,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 강창숙, 2013,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 『小學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서술방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747-763.
- _____, 2017, “미군정기 중학교 지리과 교수요목의 내용과 특징”, 대한지리학회지, 52(2), 245-263.
- 강창숙, 태지현, 2023, “2022 개정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지리 탐구의 특성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4), 55-74.
- 교육과학기술부, 2010a,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 2010b,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 교육부, 1995,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 1998,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
- 교육부, 1999, 초·중·고등학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 1954-1997).
- 교육부, 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 교육부, 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권혁재, 1991, “국토지리: 왜 배워야 하나”, 대한지리학회지, 26(3), 253-258.
- 김대현,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35(2), 95-118.
- 김영석, 2013,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기

- 역의 재구성”: 국민에서 시민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0(2), 13-28.
- 김종진, 2003, “‘교육’의 준거와 교과의 교육목적”, 교육과정 연구, 21(4), 25-50.
- 김진국, 2004a, “교사들이 인식한 지리과 교육과정 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45-60.
- 김진국, 2004b, “우리나라 지리과 교육과정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 교육, 43(2), 201-226.
- 남민우, 2007,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2, 119-152.
- 남상준, 1996a, “지리교육 목표설정에서의 상세화와 구체화의 추구”, 지리학논총, 22(1), 267-279.
- 남상준, 1996b, “지리교육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1(2), 317-328.
- 박병기·모경환·박형준·김민재·강수정·이경환·김대훈·문순창·김은미, 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지향적 사회과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 박선미, 2016a,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33-45.
- 박선미, 2016b, “우리나라 사회과교육과정의 통합구조 변화에 따른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변화: 중학교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6), 935-955.
- 박재홍·김순전, 2016, “일제의 우민화 교육과 역사교과서: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조선총독부 편찬 보통학 교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78, 183-196.
- 박창연·정영근, 2009,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27(4), 1-20.
- 백혜조·박지혜, 2014,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나타난 가치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0(3), 59-77.
-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심승희, 2017,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초등 사회과 한국지리 단원의 학습주제 및 내용 개발: 한강을 따라가는 우리나라 지리 여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1), 1-18.
- 유흥식, 1995, “지리과의 환경교육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 11-31.
- 이경한, 1993, “지리교육에서 기대하는 인간상에 관한 논의”, 지리학연구, 22, 1-12.
- 이경한, 1996, “지리교육의 가치 목표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1(1), 39-48.
- 이상은·소경희, 2019,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139-164.
- 임덕순, 1977, “중학교 사회과 교육목표의 변천”, 사회과교육, 10, 16-23.
- 임덕순, 1989, “한국 고교 지리과목의 구성골격, 목표, 내용의 변천”, 지리교육논집, 21, 1-17.
- 조성욱, 2014, “초중등 지리교육 내용 구성 방법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95-110.
- 조철기, 1999, “한국지리 교육목표의 분류학적 연구”, 지리교육, 11, 1-60.
- 최영환, 200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분석, 교원교육, 21(2), 11-24.
- 황재기, 1995, “제6차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구성의 특색과 문제점”, 서울사대논총, 51, 33-57.
- Eisner, E. W., 이해명 옮김, 2012,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단국대학교출판부(Eisner, E. 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Macmillan, New York).
- Geography Education National Implementation Project(GENIP), 2012, *Geography for Lif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2nd)*,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Washington, D.C.
- Geography Education Standards Project(GESP), 1994, *Geography for Lif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National Geographic Research & Exploration, Washington, D.C.
- Graves N. J., 1984, *Geography in Educati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ondon.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2023.10.14>)

접 수 일 : 2024. 01. 25

수 정 일 : 2024. 02. 21

게재확정일 : 2024. 02. 22

교신: 강창숙,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
대학교 교수(gaia2004@cbnu.ac.kr, 043-261-2695)

Correspondence: Chang-Sook Kang, gaia2004@cbnu.ac.kr